

Seminis®

메론

병충해 정보

 **흥농씨앗**  **중앙씨앗**

<http://www.seminiskorea.co.kr>

메론 << 노균병

<p>발생원인</p>	<p>노균병은 기온이 20도 전후(하루 최고 25도, 최저 10도)에서 습도가 낮은 시기에 밀식이나 밀파를 한 경우나 비료가 부족한 밭에서 심하게 발생한다.</p> <p>처음에는 아랫잎부터 발병되고 잎에 황색의 작은 반점이 생겨서 차차 확대되어 엽맥 주위에 황갈색의 각을 이루는 반점이 되나 오이에 나타나는 병반보다는 다소 작은 편이다. 잎 뒷면은 처음에는 백색이나 나중에는 흑회색으로 변하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제 1차 전염원은 분명치 않으나 피해잎의 조직속에 형성된 난포자가 토양 속에 월동하여 다음해에 전염원이 된다. 감염은 기공이 많은 잎 뒷면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온이 10~25도 정도 되고 다습한 조건에서 감염이 잘 된다. 특히 배수가 불량하거나 일조량이 부족하고 밀식재배, 질소질비료의 사용을 많이 하였을 경우 더욱 심하다.</p>
<p>병징</p>	
<p>방제대책</p>	<p>밀식을 피하고 통풍, 통광이 잘 되도록 하고, 비절(肥切)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병든 잎은 모아서 소각하고, 배수가 잘 되게 하며 약제로는 타로닐, 카탄 등을 살포한다.</p>

메론 << 만고병



<p>발생원인</p>	
<p>병징</p>	<p>하우스나 온실에서는 가을부터 봄의 비교적 저온기에서부터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시기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발생한다. 이 병은 기온이 16~24도 정도에서 발병하며 고온, 다습, 산성토양에서 발생이 심하다. 증상은 지상부의 각 부분에 발생하나 토양 근처의 줄기가 땅에 닿는 부분 2~3절 사이에 많다. 처음에는 수침상으로 되나 점차 표면이 희게 되고 틈이 생기는데 나중에 흑색의 소립(小粒)이 밀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지상부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 이 병은 병반부에 적갈색의 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p>
<p>방제대책</p>	<p>발생초기에는 병든 곳의 병반을 칼로 긁어내고 지오판이나 타로닐, 벤레이트 등을 물에 개어 붓으로 발라주면 효과적이다. 또한 적엽, 적심, 적과를 할 경우 상처를 통하여 병균이 침입하므로 상처부위에 위의 약제 또는 유행가루를 발라주도록 한다. 특히 시설내에서 관수를 할 때 지제부가 젖지 않도록 하고, 환기를 철저히 시켜주도록 한다. 또한 정식시 깊게 심기지 않도록 약간 높게 심고 비닐멀칭을 하도록 한다. 피해경엽은 즉시 소각하고, 지주재배를 할 경우 전년도 사용분은 필히 깨끗이 씻어주고 소독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병의 발생이 심해지면 약제로는 방제가 불가능한 병이며 흰가루병이 만연할 시기에는 어느정도 수확을 하였으므로 덩굴을 걷어내는 것이 좋다.</p>

메론 << 흰가루병(백반병)

발생원인	
병징	<p>잎, 줄기, 과실 등 지상부 전체에 발생하는 병으로서 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p> <p>증상은 잎 표면에 흰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이 되나 나중에는 회색으로 변하며, 다시 흑색의 소립점을 형성하고 결국은 말라죽는다. 메론의 경우에 병무늬가 묽으면 흰가루가 없어지고, 황색의 점무늬에서 불규칙한 반점으로 되므로 다른 병과의 구별이 없어진다.</p>
방제대책	<p>하우스안의 환기를 철저히 하여 과습하지 않도록 하고 질소질비료의 과용으로 인해 경엽이 무성하지 않게 한다. 발병된 잎은 조기에 제거하여 소각하고 약제를 살포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타로닐수화제가 효과적이며 그외에 포리옥신, 모레스탄수화제, 지오판수화제 등을 잎뒷면에 충분히 묻을 수 있게 흠뻑 살포하도록 한다.</p>

메론 << 만할병

발생원인	
병징	<p>연작을 하거나 윤작 연한이 짧을 경우 이 병의 발생이 심하다. 특히 하우스재배에서 노지보다 그 발생이 빠르고 심하다. 발생초기에는 아랫잎이 시들다가 점점 위로 시들어 올라가 나중에는 포기 전체가 시들어 죽게 된다. 피해주의 줄기나 뿌리를 절단해 보면 목질부의 물관이 암갈색으로 변해 있으며 그 내부에 소형의 분생포자가 가득차 있다.</p>
방제대책	<p>신토좌호박등에 접목을 하거나 5년 이상 윤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싸이론등의 약제를 이용하여 토양소독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p>

